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민원처리특위, 『통합관제센터』 실태점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파악해 앞으로 의정활동 반영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7시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 등으로 부터 구민안전을 위해 547대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강북구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를 방문하였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방문은 설 연휴를 맞아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구민안전의 첨병역할을 하고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팀장과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모니터링 방법을 지켜보며, "현재 동별 묶어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화면이 흐릿하게 보일 때 처리방법,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50%를 차지하는 저화질 CCTV 교체계획" 등에 대해 팀장으로 부터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예산부



▲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한 강선경 의원과 박문수 위원장.

족에 대하여 타구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예산확보방법과 저화질의 CCTV 교체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문수 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구민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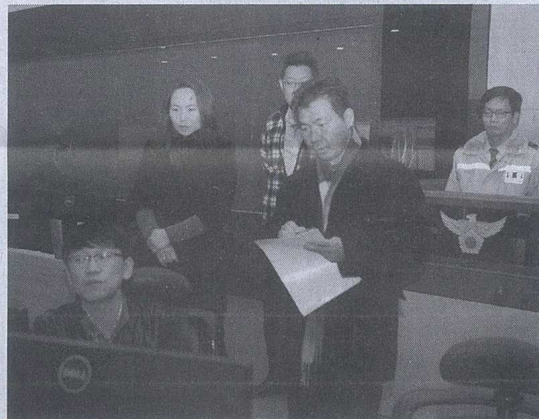
근무요원들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며, 이번 방문활동을 통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시사프리 7면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설 안전대책 '통합관제센터' 실태점검!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는 지난 16일 오후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 등으로 부터 구민안전을 위해 547대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강북구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를 방문했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방문은 설 연휴를 맞아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구민안전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에서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팀장과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모니터링 방법을 지켜보며 "현재 동별 묶어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합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화면이 잘 안보일 때 처리방법,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50%를 차지하는 저화질 CCTV 교체



계획" 등에 대해 팀장으로부터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예산부족에 대해 "타구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예산확보방법과 저화질의 CCTV 교체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문수 위원장은 "근무요

원들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번 방문활동을 통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해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영일 기자

민원처리 관련 특위 '통합관제센터' 실태점검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관련 특별위원회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위원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에서는 지난 16일 오후7시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 등으로 부터 구민안전을 위해 547대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강북구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를 방문하였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방문은 설 연휴를 맞아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구민안전의 첨병역할을 하고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팀장과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재 동별로 묶어 모니터링 하

는 것을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화면이 희뿌옇게 보일 때 처리방법,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50%를 차지하는 저화질 CCTV 교체계획" 등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타구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예산확보방법과 저화질의 CCTV 교체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박문수 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근무요원들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방문활동을 통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라고 했다.

지역연합 7면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위 '통합관제센터' 실태점검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에서는 지난 16일 19시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 등으로 부터 구민안전을 위해 547대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는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강북구 미아동 복합청사 지하1층)를 방문했다.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팀장과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별 모니터링을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화면이 희뿌옇게 보일 때 처리방법, 집중 모니터링 하는 시간,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50%를 차지하는 저화질 CCTV 교체계획" 등을 묻고, 예산부족에 대하여 타구사례를 들어 다양한 예산확보방법과 저화질의 CCTV 교체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이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설 안전대책 통합관제센터 실태점검 나서

설 연휴를 맞아 구민 안전위해 운영실태 직접 점검위해 방문

강북구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수, 부위원장 강선경)에서는 지난 16일 저녁 7시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547대의 CC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강북구 미아동 복합정사 지하1층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방문은 설 연휴를 맞아 구민들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구민 안전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 박문수 위원장과 강선경 부위원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팀장과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모니터링 방법을 지켜보며, △현재 동별 묶어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할수 있는지? △화면이 희뿌옇게 보일 때 처리방법 △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간 △모니터링 운영과 처리실적 △50%를 차지하는 저화질 CCTV 교체계획 등에 대해 팀장으로부터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예산부족에 대하여서는 "타구 사례를 활용한 다양한 예산확보방법과 저화질의 CCTV 교체방법 등 운영의 묘를 살려 구민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문수 위원장은 "설 명절 연휴기간 구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근무요원들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번 방문활동을 통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 주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